

국민연금 '내는 돈' 9→13%·'받는 돈' 40→42% 인상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의무가입연령 59→64세 상향 중장년층 보험료 더 빨리 올라...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또한,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27년만의 보험료율 인상 '9→13%'...소득대체율은 '40→42%'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 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무가입연령 64세 제안...정년 연장과 연계 전망

정부는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 확대와 같은 고용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경제 연동해 '자동조정장치' 가동...인상 폭 줄여들 듯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 같은 인상 폭이 줄어

든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3.6%이더라도 이보다 적은 만큼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소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의견 충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준선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장은 "모든 개혁안에서는 견해 차이가 달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번 정부의 개혁안은 제도의 지속을 위해서는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자동조정장치도 현재의 10대나 미래에 태어날 세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비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태호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5대 문화콘텐츠 협업형 BM 육성

(비즈니스모델)

사업 구체화·마케팅 등 본격 지원 소득향상·문화산업 활성화 기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콘텐츠 분야의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위한 협업 비즈니스모델 육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4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콘텐츠 분야 BM(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협업형 사업화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사업화 역량이 취약한 5대 문화콘텐츠분야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 영세기업의 사업화 및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디자인진흥원은 ▲미술 ▲영상 ▲음악 ▲공예·디자인 ▲에듀테인먼트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콘텐츠 분야와 연계된 협업형 BM을 공모, 접수된 34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열어 14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14개 과제의 대표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화 역량강화 캠프 ▲BM 구체화를 위한 전문



장성에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기공 4일 장성군 삼계면에 들어서는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등 관계자들이 시삽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가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2단계로 나뉘어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1단계는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비즈니스모델 구체화(개발)를 지원하고, 2단계는 개발된 비즈니스모델 마케팅 및 사업화 등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BM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디자인, ICT, AI 기술 등을 활용해 혁신적인 협업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화 방향을 정립하도록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전략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도 BM 발굴 육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 '협업형 BM 프리스쿨'을 마련해 전문가 특강 및 사업기획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

이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의 협업 사업화가 중요하다"면서 "문화콘텐츠 분야 BM 육성을 지역 문화예술인 소득 향상은 물론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중진공 전남본부 '청년창업 간담회' 성료

청년창업사관학교 관련 16개사 참여...입주 공간 확보 등 건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는 4일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 및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졸업기업 16개사 등 27여명이 참석해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 등에 논의했다.

ICT 기술을 접목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순남농(주)김민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타 업종 기업들 중에도 졸업 후 사업장 확보에 어려움이 겪는 곳이 많다"며

창사 입주 공간에 대한 해결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지방 이전은 고무적인 일로, 졸업기업과 이진기업의 입주 공간 확보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원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판로 개척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제조업 실무 교육 ▲청년 창업기업 간 협업사업 지원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의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정은솔기자

세금으로 갚을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

천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천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회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